

토종 게임콘텐츠, 이젠 PS3로 즐긴다

KIPA, 소니와 PS3용 게임제작 협력 발표

글 박현수 기자 사진 이해성 기자

국내 온라인게임 업체의 콘텐츠를 '플레이스테이션3(PS3)'를 통해 즐길 수 있는 날이 멀지않았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은 지난 달 11일 지스타 2005 전시회장에서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재팬(Sony Computer Entertainment Japan: 이하 SCEJ)과 PS3용 온라인게임 제작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KIPA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서 진흥원과 SCEJ의 심사에 의해 선정된 국내 개발사가 제작하는 PS3용 온라인게임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KIPA는 국내 게임 개발자들이 PS3로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참여 인력들이 일본 크리에이터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하여, 향후 국내 개발자들이 PS3용 게임 콘텐츠 개발을 가속화하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동 프로젝트에서 KIPA는 프로토타입 제작을 SCEJ는 본격적인 발매를 위한 본게임 제작을 각각 지원한다. KIPA는 개발사가 게임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비 임대 및 기술 지원 등의 전폭적인 후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동 프로젝트로 제작된 게임 콘텐츠는 SCEJ가 퍼블리셔로 일본 시장에서 발매하며 국내에서는 SCEK가 퍼블리셔로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KIPA 관계자는 "게임 개발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거대 기업과 접촉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번 협력은 둘 사이의 창구를 연 계기가 됐다"며 "국내 업체들이 PS3에 맞는 좋은 제품을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KIPA는 지난달 11일 SCEJ와 PS3용 온라인게임 제작 공동 프로젝트 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2006년 초에 국내 개발사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안서 심사를 통한 국내 개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2006년 하반기 프로토타입 제작, 2007년 본게임 제작의 순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오는 2008년 상반기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SCEJ는 선정된 개발사와 PS3용 온라인게임 개발 계약을 맺은 후, 개발사 측에 개발 장비를 임대하고, SCEJ 제작부를 통해 게임 개발 기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KIPA는 이번 협력 프로젝트가 좋은 성과를 거둘 경우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계속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택민 KIPA 디지털콘텐츠사업단 단장은 "PC 플랫폼에 편중되어있는 국내 게임 개발사의 개발 역량을 비디오게임으로 확장하도록 유도해 개발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MS, 신제품 발표회 'Ready 2005' 개최

SQL 서버 2005 등 신규 애플리케이션 대거 소개

글 양기석 기자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 이틀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제품군인 <SQL 서버 2005>, <비주얼 스튜디오 2005> 및 <비즈토크 서버 2006>을 소개하는 'Ready 2005'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신제품 발표회를 통해 엔씨소프트·KBSi·넥슨 등 초기 구축사례를 비롯한 주요 파트너사 전시관을 운영하는 등 신제품을 기반으로 개발된 각 협력사의 다양한 솔루션도 소개했다.

또한 이번 발표회에서는 직접 SQL 서버 2005와 비주얼 스튜디오2005의 각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핸즈온랩(Hands on Lab)' 과 제품별 전문가를 직접 만나 신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는 '전문가에게 물어보기(Ask the Experts)' 등 다양한 세션을 통해서 각 제품의 장점과 기술적인 정보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한국MS는 이번 3개의 신제품 출시를 기점으로 각각의 분야에서 3년 내 업계 선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SQL 서버2005의 경우 향후 국내 대기업 DBMS 시장에서도 선두 기업이 된다는 목표 하에, DB 미러링이나 장애복구 클러스터링 온라인 백업 및 복구 등의 기능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업계 화두인 EAI, BPM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MS의 야심작인 <비즈토크(BizTalk)서버 2006>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5,000여 고객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시장 공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MS 신제품 발표회 'Ready 2005'

한편 한국MS는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행사 첫날인 11월 22일에 제품과 고객 사례를 소개했고 다음날인 23일에는 제품 교육 세션에 참석한 고객을 대상으로 MS 무료 자격시험 쿠폰을 제공했다. 또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비주얼 스튜디오 2005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20%의 가격할인을 제공하고, 타사의 DBMS에서 SQL서버 2005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50%의 라이선스 가격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지난달 30일부터는 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전국로드쇼도 진행하고 있어 지방 개발자 및 IT관리자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유재성 한국MS 사장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버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출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IT 업계에는 큰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며 "이번 신제품들과 사례들을 통해 업계에서는 '협업'과 '통합'이라는 명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